

작곡전공(Composition & Theory Major)

650.506 음악미학연구 3-3-0

Aesthetic of Music

음악에 대한 철학적, 미학적 통찰력을 기르고 서양 음악미학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탐구한다.

This course will provide notions on philosophical and aesthetical speculation about music.

650.526 인도음악연구 3-3-0

Studies in Indian Music

인도음악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비서구권 음악에 대한 좀 더 깊이있는 통찰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도음악을 형성하는 독특한 개념들, 역사, 작품, 연주실제에 대해 논의하며, 강의의 많은 부분이 실제 인도음악 연주자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악기, 연주방식, 해석 등 다방면에 걸친 음악적 견해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This course will examine non-Western music through a basic understanding of Indian music. Students will learn about the original concepts, history, composition theory, and performance practice of Indian music. Listening experience therefore will be crucial to the course. Students will also be required to give presentations on chosen topics. Some guest performers will be invited for discussions on their musical ideas, instrument, and interpretation.

650.532 음악기호학연구 3-3-0

Studies in the Semiology of Music

음악을 기호학적으로 검토하여 그 바탕에서 음악의 구조를 살피는 학문적 분야이다. 기호의 단위, 분절, 계층적 구조, 담론의 형성 등을 검토하여 음악의 구조를 규명하는 분야이다.

This course will study the structure of music on the basis of a semiological investigation. It will explore sign units, articulation, hierarchial structures, and discourse formation.

650.534 음악사회학연구 3-3-0

Studies in the Sociology of Music

음악사회학은 음악을 사회적 산물로 보고 음악 현상의 사회적 기원과 그 과정 및 구조를 연구한다. 따라서 예술가, 예술작품, 예술제도, 청중의 조직과 상호작용이 연구대상이 된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social origins, processes, and structures of musical phenomena. Focus will be on artists, artworks, artistic systems, and the organization of audiences and their interaction with music and musicians.

650.535 음악현상학연구 3-3-0

Studies in the Phenomenology of Music

음악의 현상을 현상학적으로 검토하여 그 바탕에서 음악의 제 이론을 다시 살펴보는 학문적 분야이다. 음악에 대한 접근방법의 하나로서 음악학의 모든 면을 재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will study musical theories on the basis of a phenomenological investigation of musical phenomena. It will reconsider all aspects of musicology as one way of approaching music.

650.561 음악분석이론연구 3-3-0

Study of Music Analysis Theory

수사학, 음형이론, 쉐커식 방법, 기호학, 집합이론, 현상학 등 여러 분석 이론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획득하고 각 방법의 가능성과 한계를 인식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influential analytical theories including rhetorics, Schenkerian analysis, set theory, semiology, and phenomenology and examine their respective potentials and limitations.

652.562A 음악심리학연구 3-3-0

Studies in Psychology of Music

음악심리학은 음악의 인지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수용, 음의 지각, 음악적 상을 만들고 음악적 상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활동 등 복합적인 인간행위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본 과정에서는 음악 인지과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는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분야에 개한 종합적인 시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e cognitive science of music concerns the reception, perception, and cognition of sounds that happens in the process of listening. This course will provide basic concepts of this area and an opportunity to grasp the main ideas from current research.

652.586 전공실기(작곡) 2-1-2

Major

다양한 편성의 커리큘럼에 의해 한 학기에 두번씩 3학기를 연속하여 작품을 쓰는 과목으로, 작곡가로서의 자질을 습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compose works twice each semester, over three consecutive semesters. The purpose of the course is to train students as future composers.

652.588 전공지휘 2-1-2

Conducting Major

커리큘럼에 따라 여러 작곡가들의 작품을 지휘함으로써 지휘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습득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acquire the basic skills as future conductors by conducting work by various composers.

652.598 현대음악미학연구 3-3-0

Studies in Aesthetics of Contemporary Music

현대음악은 기존의 19세기 음악과는 다른 음악관 및 세계관으로부터 나타났다. 세기말과 세기 초에 걸쳐 서구 사회에서 발생한 급격한 사회변화 및 기존 가치관의 붕괴는 서구 음악 창작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고, 19세기의 전통적인 음악으로부터 결별하려 했던 20세기 작곡가들은 전통적인 음악관과는 결별한

새로운 음악적 인식을 필요로 했다. 이 강좌는 이렇듯 기존의 음악미학을 통해서 더 이상 설명이 어렵게 되어버린 현대음악의 다양한 미학적 측면들을 구체적인 작품들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조망하면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설명을 직접 제공하는 작곡가들의 글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현대음악작품과 현대음악 작곡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Contemporary music in western society differs from 19th century music in that it has a totally different point of view in music and world. Music making in 20th century mirrors drastic social changes and upheaval of traditional way of thinking. So composers, who eagerly wanted to separate themselves from the tradition, also were required to deal with new paradigm and consciousness in new music. This course is to look into various aesthetic aspects in contemporary music through providing specific examples of 20th century music and dealing with composer's own writings in order to give a better understanding of aesthetics of contemporary music.

652.599 음악청중의 사회사 3-3-0

A Social History of Music Public

우리가 주로 접하는 18~19세기 서양음악을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듣고 연주하였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고전 음악청중이라는 집단이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파리, 런던, 비엔나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당시 사회전반을 살펴보고, 궁정, 극장, 공공 음악회, 살롱 등이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음악 문화를 발전시켰고, 음악청중 형성에 기여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This seminar will investigate which people group in European Society did enjoy the so-called "classical music." In other words, the process of shaping the "classical music public" will be discussed. Above all, it will focus mainly on the cases of big cities like Paris, London and Vienna. The general background of cities, the formation of musical establishments in each courts, origins of music institutions such as public concerts, music theater and salons will be discussed. The interaction among court, theater, public concert and salon will be also illuminated.

652.600 20세기초반 한국의 서양음악사 3-3-0

European Music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y

한국의 서양음악은 이제 100여 년의 수용과정을 통해 한국에서도 더 이상 외국의 수입문화라고만 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 물론 전공이 서양음악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 먼 곳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강의를 통해 서구의 위대한 음악 대가들에게만 고정된 시선을 한국에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서양음악의 역사적 과정으로 돌려보고자 한다. 서양본토의 음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깊이 연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이와 병행하여 한국에 수용된 서양음악의 다른 모습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강의는 크게 3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식민지 시기 일본을 통해 들어온 근대적 음악매체, 음악단체, 청중 및 음악의 유통 등 사회적인 맥락, 둘째, 한국음악가와 작품 등 구체적인 음악연구, 셋째, 20세기 초반의 음악사 서술문제에 관한 토론이 그것이다.

European music becomes increasingly a part of Korean culture, but its already long history in Korea seems to

be neglected by students of music. This seminar tries to offer them a perspective for the Korean music history during the colonial period. It could be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the social context. In this part it will be considered how the European music was transferred via Japan, using not only music technique like gramophone records, radio etc., but also by concerts. The audience of modern music in Korean Peninsula will be an important topic. *Second*, studying on the Korean musician and their works for example Hong Nanpa, Ahn Giyoung, Hyun Jemyoung etc. *Third*, discussion about the perspective and method of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music, history of this period.

657.513 음악문화구조론 3-3-0

Structure of Music Culture

이 과목은 세계 여러 음악의 양식적 구조로서의 문화적 의미를 비교론적 방법에 의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해석방법이 도입되며 이러한 이론들을 통하여 한국음악, 동양음악, 그외 여러 음악들을 분석하게 된다. 다양한 음악양식의 구조적 특성이 어떤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그 문화적 환경이 음악창작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순환적 관계에서 비교하게 된다.

We'll research the cultural meanings of the world music as a stylistic structure by the comparative methods. This lecture is gone on the several methods of cultural interpretation theories and we'll analysis korean music, western music, oriental music and the others by the theories. The first aim of this lecture is to know the structural characters on the world music and the second is to research the cultural meanings in the structural characters. The final is to find the circling relations between the cultural environments and the musical works.

657.702 작곡실기 3-1-4

Composition Major

완성도가 높고 개성이 있는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그리고 작곡을 전공하는 학사, 석사과정의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도 아울러 배양한다.

This course aims for developing students' proficiency and originality in composition under the direction of a faculty adviser. Along with that, it prepares students for leadership in research, teaching, the application of knowledge and professional practice.

657.703 지휘실기 3-1-4

Orchestral Conducting Major

한 사람의 전문 지휘자로 활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능력을 배양한다. 지휘봉을 사용하는 기술에서부터 관현악 작품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 연주자들을 적절히 훈련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며 나아가 폭넓은 레퍼토리를 확보할 수 있는 연구도 병행한다.

This is an individual instruction in the conducting through a detailed study, ranging from the problems of baton technique to the study and interpretation of musical literature on orchestral music, and to the methods of training performers.

657.712 작곡세미나 3-3-0

Composition Seminar

담당교수의 지도 아래 학생들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작곡기법, 구성, 관현악법, 작품의 시대적 의미 등의 측면에서 토론을 펼치는 가운데 바람직한 작곡의 방법을 모색한다.

As an advanced studies in music composition, either acoustic or technological, this seminar is team-taught by a faculty member, examining topics from several disciplinary viewpoints, such as composition technique, orchestration, historical meaning of works.

657.720 전자음악연구 3-2-2

Studies in Electro-acoustic Music

전자음악 문헌연구를 통해 전자음악의 다양한 양식을 파악하고 심도있는 실습을 통해 전자음악 창작을 위한 전문적 기술을 배양한다.

Study of literature of electro-acoustic music to learn its various styles. Specific practices of professional techniques for creating electro-acoustic works.

657.730 20세기음악사연구 3-2-2

Studies in History of Century Music

이 과목은 20세기 음악을 서구 예술 음악의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경향을 보여주기에 많은 연구가 필요한 현대음악의 특성상 이 과목은 20세기 음악의 다양한 경향과 작곡 기법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music in the twentieth-century in the light of the history of Western art music. Modern music has so diverse tendencies that still need to be investigated;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have a clue to understand modern music, focusing on exploring the diverse trends and compositional techniques from the historical point of view.

657.731 졸업작품 발표 및 공개 연주회 3-0-6

Graduate recital & Colloquium about own works for graduation

박사과정 재학 중 작곡한 작품들을 공개 발표하고 그 작품에 대한 콜로키움을 행한다.

Participants are required to present their works in concerts before a faculty auditioning committee. The works are evaluated in terms of proficiency and originality in composition.

657.732 오페라 문헌 연구 3-3-0

Opera Literature

Monteverdi에서 현대의 Penderecki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Opera문헌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연주전공자(지휘, 성악, 기악)들에게는 작품해석능력을, 작곡전공자들에게는 오페라를 비롯한 극음악 작곡 능력을 함양시킨다.

This class aims to enhance interpretation skills for performance major students (conducting, vocal, instrumental major students) and to foster composition skills of dra-

ma music for composition major students by deeply studying various opera literatures ranging from Monteverdi to Penderecki.

657.733 관현악 문헌 연구 3-3-0

Orchestral Literature

바로크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의 관현악문헌을 심도 있게 연구함으로써 연주전공자(지휘, 성악, 기악)들에게는 작품 해석능력을, 작곡전공자들에게는 관현악작품의 작곡 능력을 함양시킨다.

This class aims to enhance interpretation skills for performance major students (conducting, vocal, instrumental major students) and to foster composition skills of orchestral works for composition major students by deeply studying various orchestral literatures ranging from baroque music to contemporary music.

657.734 지휘 졸업 연주 1-0-2

Graduation recital for Conductors

박사과정 지휘전공 마지막 학기 재학생을 위한 과목으로서 교내 학생관현악단 및 교외 전문연주단체 지휘를 통해 전문사회자로서의 능력을 검증한다.

This course is for conducting major students in last semester of doctoral course, helping them improve their conducting technic through conducting and practicing university orchestra and other professional performing groups outside the university.

657.735 음악극창작워크숍 3-3-0

Workshop for the creation of Music Theater

현대 공연예술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중요한 장르인 새로운 음악극을 중심으로, 현대 오페라는 물론이거니와 대중적인 뮤지컬까지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음악극 장르의 창작 및 제작에 대한 실습 및 현장경험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의 우선적인 목표는 새로운 작품의 창작이다. 더 나아가 이 과정은 앞으로 음악극 분야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훈련시켜 최근 공연예술계가 절실히 요구하는 수준 높은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것 역시 목표로 삼는다.

This new course will provide the stu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have practical training and field experiences for the production of the music theater in a broader sense, including contemporary opera, musical, and especially the New Music Theater, which has recently drawn a keen attention in the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The aim of the course is to create a new piece of work. Furthermore, the new course will focus on producing and releasing professional composers and librettists to the performing arts world.

657.736 현대음악어법 3-3-0

Vocabulary and Technique of Contemporary Music

1950년대 이후의 현대음악에 나타난 주요 기법 및 형식적 구조의 분석을 통하여 각 작곡가들의 음악적 사고와 철학, 작곡 언어로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연구한다.

A research of the musical language by analysis of the formal structure and principal techniques of the compositions after 1950s.

652.601 음악인류학 3-3-0

Anthropology of Music

음악은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향유하는 대상이다. 다만 음악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양식으로 발달했다. 서양의 예술음악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그 이외의 문화권에 대한 연구는 이와 대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 종족의 음악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하고, 비교음악학의 관점에서 여러 종족의 문화에 대한 비교연구는 음악과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밝혀 준다. <음악인류학> 수업에서는 서구의 예술음악 이외의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서로 비교해 보고, 음악의 보편성과 상대성에 대한 문제에 관한 인류학적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한다.

Music is a subject that all human beings universally possess. However, music has evolved to different styles according to its function and purpose. Researches on the Western music have been done in various ways, while music in other cultural areas has not been studied equivalently. Studies which deal with history of individual tribes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compare their diverse cultures in terms of comparative musicology could reveal important aspects about the essential issues of music and human being. In this class, students compare music of various cultural areas outside of the Western music tradition, and discuss anthropological issues on universality and relativity of music.

652.602 음악신경과학연구 3-3-0

Research in Neuroscience of Music

인간의 음악 지각과 인지에 관한 기존의 사변적, 실험적 연구로 밝혀내지 못했던 문제들을 최근에 뇌파, 뇌영상 기기들을 이용한 신경과학적 연구로 속속 규명해 낼 수 있게 되었다. EEG, ERP, PET, fMRI, MEG 등 기기를 이용하여 인간의 언어 인지능력을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방법들이 많은 부분 음악인지에도 적용될 수 있음도 발견되었다. <음악신경과학연구> 수업에서는 이 분야의 기초지식을 배우고 최근의 연구 성과를 살펴본 후, 다양한 연구방법론의 장단점을 논의하고, 궁극적으로는 수강생들 각자가 음악에 대한 신경과학적 연구모형을 디자인해 본다.

Recent studies of neuroscience research using brain wave, brain imaging techniques have explicated problems that have not been proved by speculative, experimental investigation about human music perception and cognition. Using EEG, ERP, PET, fMRI and MEG, it has been found that many of the various research methods investigating human ability to cognize languages can be adapted to music cognition. In this class, students learn basic knowledge on neuroscience of music, look through recent research achievements in the field, and then discuss strength and weakness of various research methodologies. Finally, Students themselves would try to design neuroscience research model.

공통과목(Core Courses)

650.501 졸업연주 1-0-2
Graduate Recital

타 대학원의 졸업 논문에 준하는 연주회로 개인이 혼자 1시간 프로그램의 연주회를 구성하여 발표한다. 대학원 실기 3학기를 모두 이수한 후 할 수 있으며, 바로크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가곡들을 모두 발표한다.

For a music major, the presentation of a graduation recital is equivalent to writing a master's dissertation. In this course, the students will prepare and present an hour-long program. This course is for graduate students who have finished three terms of vocal performance. The repertoire must include songs of various periods from the Baroque through the modern era.

650.511A 19세기 음악사 3-3-0
History of 19th Century Music

기존의 19세기 음악 연구의 경향은 주로 낭만주의라는 어휘로 설명되었다. 하지만 최근 관련 연구자들은 더 이상 19세기의 음악을 낭만주의의 개념으로 파악하지 않고 19세기에 나타난 음악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그들의 연구 관점이 변화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즉 이미 19세기 음악에는 어떤 특정한 단일 사조를 통해 요약될 수 없는 여러 특징들이 존재하며, 따라서 연구자들에게는 19세기에 나타난 음악현상들을 그 시기의 음악 작품들을 통해 드러난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졌다. 만약 음악사의 시기 구분이 그 연구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19세기 음악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이 강좌는 수강생들로 하여금 위에서 언급한 음악사 연구의 경향을 숙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o far the trend of research in history of 19th century music tended to be summarized mainly as the term Romanticism. But currently researchers in music history are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ir point of view of 19th century music: from music in Romanticism to 19th century music of its own. There are already many types of characteristics in 19th-century music that cannot be summed up in one type of -ism, and it is quite understandable for researchers to explain the musical phenomenon of 19th century on behalf of various aspects of musical works in that time. The more reasonable explanation will be possible for 19th century music if the division of period in music history is adjusted to its proper way of research and this course is to facilitate students to be fully aware of above mentioned trend of music history research.

650.567 조성음악문헌연구 3-3-0
Study in Literature of Tonal Music

이 과목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성음악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여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에 접하게 한다. 매주 학생들이 돌아가며 발표를 준비하며 수업한다.

This course revisits some new aspects of tonal music. Each student is required to give an in-class presentation.

650.572 예술경영 3-3-0
Arts Management

공연예술분야를 중심으로 경영과 행정 기술을 도입하여 예술 공연 기획, 운영의 전문화를 꾀하고, 공연예술에 대한 다양하고 폭 넓은 수요를 창출하여, 문화예술의 상품가치를 높인다. 수업 내용으로는 예술경영전반에 대한 이해, 분야별 특성, 국가별 운영 체계 비교, 조직 구성원, 설립취지, 이사진의 역할, 리더십, 비영리 조직과 영리조직의 비교, 재단법인, 기금마련, 예술 단체의 창단 및 운영, 기업 스폰서십, 개인 후원, 프로그램기획, 예산, 이벤트 등이 있다.

This course gives students the opportunity to develop skills as future managers and fundraisers of the performing arts by incorporating business and administration techniques to create a new market and increase the value of arts products.

Skills and topics include the following: leadership, thorough and detailed understanding of the field, making not-for-profit and for-profit arts organizations, different departments of an arts organization, fundraising, corporate sponsorship, individual donors, program planning and evaluation, budget, and event coordination.

657.715 박사과정연주회 1-0-2
Doctoral Recital

박사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량을 공개 연주회를 통하여 발표하고 평가를 받는다.

All doctoral performance majors are required to perform a varying number of recitals with selected programs consisting of various musical times and styles.

657.721 현대음악문헌연구 3-3-0
Studies in Literature of Contemporary Music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 작곡된 작품들의 양식적, 기법적 변천에 대해 고찰하되 특히 최근 작품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여 앞으로 현대음악이 나아갈 방향을 예측한다.

Survey of contemporary works since 1950s in terms of change in their styles and techniques. Emphasis is placed on the latest tendencies of contemporary works to search for the various possibility of contemporary music.

657.803 대학원논문연구 3-3-0
Dissertation and Research

국내·외의 우수한 박사학위논문을 수집하여 분석·고찰하고, 학생들이 우수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investigates doctoral dissertations of home and abroad, discussing and analysing them, in order to gain practical experiences and to develop abilities in writing on an advanced level.

661.517 중세음악사 3-3-0
History of Medieval Music

단성 성가와 세속노래, 다성음악의 기원과 발전, 14세기 프

학점구조는 "학점수-주당 강의시간-주당 실습시간"을 표시한다. 한 학기는 15주로 구성됨. (The first number means "credits"; the second number means "lecture hours" per week; and the final number means "laboratory hours" per week. 15 weeks make one semester.)

랑스·이태리음악, 15세기 버건디 악파까지 매주 원서강독 세미나를 통해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In this course, chants and secular songs, beginnings and development of polyphony, French and Italian music in the 14th century, and Burgundians in the 15th century will be discussed by reading original English texts every week.

661.518 르네상스음악사 3-3-0

History of Renaissance Music

15세기의 프랑코 플레미쉬 악파, 16세기 민족음악 양식, 후기 르네상스 시기의 교회음악과 종교개혁까지 매주 원서강독 세미나를 통해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In this course, the Franco-Flemish in the 15th century, national styles in the 16th century, and church music of the late Renaissance and Reformation will be discussed by reading original English texts every week.

661.519 바로크음악사 3-3-0

History of Baroque Music

17세기 초 오페라의 발생, 17세기 후반의 오페라와 성악음악, 18세기 초반의 기악음악까지 매주 원서강독 세미나를 통해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In this course, the rise of the opera in the early 17th century, opera and vocal music in the late 17th century, and instrumental music in the early 18th century will be discussed by reading original English texts every week.

661.520 고전주의음악사 3-3-0

History of Classic Music

1750년부터 1830년경을 풍미했던 계몽주의 사조와 이 시기의 음악에 대해 매주 원서강독 세미나를 통해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The Enlightenment dominated from 1750 to 1830. In this course, music from this period will be discussed by reading original English texts every week.

661.523 민족음악학방법론 3-3-0

Theory & Method in Ethnomusicology

민족음악학이란 본래 비서구음악 또는 인류의 모든 음악을 그것이 성장한 풍토를 낳은 문화현상의 하나로 보고 제 민족의 음악문화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분야이다. 특히 민족음악학은 고유의 기록방식이 없는 음악문화권의 음악을 현장조사를 거쳐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분석하여 이론을 도출해 내는 방법론의 개발에 적지 않은 진전을 이루었다. 따라서 한국 전통음악을 내부적 시각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국음악학이 같은 대상을 외부적 시각에서 조명하는 종족음악학의 몇몇 방법론에 흥미를 갖는 것은 일단은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강좌는 외국의 종족음악학이 거둔 방법론의 결실을 섭렵하고, 이의 한국적 수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Ethnomusicology is the scientific study of the national musical culture of each country. This course will show the effect of musicology on the music of various foreign countries and explore the ways in which Korean musical culture should accept such methods.